

살아야 한다!!

탈출구, 비상구를 찾아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현실은 냉혹하고 암울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을 비판하면서 작게나마 틈새를 내보자.
그리고 그 틈새를 들여다보자. 비상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구일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10대 중여학생회

차 · 례

들어가기 2

"살아야 한다! 비상구, 출구구를 찾아서..." 3

전체 행사 일정

행사 때 뭐 하나? 4

(IMF전망, 간담회, 강연회, 영화제)

소개합니다! 9

-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민우회 주최 예비취업여성 캠프 12

- 여성의 현실

몸으로 느끼고 희망을 조직하자!*에 갔다와서

전단! 이렇다구 뭐가 달라지나? 세상이 달라진다! 14

by 연세학생특별위원회

전단! 여성노동에 대한 5가지 질문과 답변 18

편마한 사회? 그래도 탈출구를 찾아내자! 23

-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선배님들 질의응답

(편집인, 간호사, PD, 의상디자이너, 카페경영자,

사회단체활동가, 카피라이터)

여성신규실업의 현황과 대응책 (강연회 발제문) 41

by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회장 김신연경 (정의 4)

지겨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그래도 주위의 몇 명은 진로를 결정하여 사회로 향하는 첫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올해는 정말 없더군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을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실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곳에서 여러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실업사태는 확실히 개개인들만의 문제로 돌려질 수 없는 커다란 구조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세에서 살아가는 여성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바는 조금은 다른 면입니다. 바로 이러한 발언들 속에 '여성의 노동'에 관한 문제가 언제 한 번 심각하게 제기되고 대책이 논의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원하는 경우 사회의 반응이란 호황일 때에나 '그래, 여자들도 조금은 쓸모가 있는 법이지'식의 거만한 자선 이심도 이마도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조금만 돌리면 바깥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일해온 여성들에게 사회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아버지이거나 남편인 사람들을 좀 더 위로해주지 못한다고, 좀 더 기 살려주지 못한다고 욕박을 지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여러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인 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직업은 특히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자신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가부장제 사회는 대동 '가정'에서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 일을 통해서도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며 위로해주는 척 한 마디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정의 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왜 가사노동은 정당하게 돈으로 환산되어 보상이 주어지는 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연세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을, 하고 싶은 열정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창한 여성운동의 구호가 이런 바램들과 떨어져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우리들의 주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준비한 행사가 행사 자체만으로 우리들의 길을 원하게 다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함께 주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자신감은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구체적인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함께 용기와 희망을 만들어 나가 봅시다.

살아야 한다!! · 비상구, 돌파구를 찾아서.....

"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월 (28일)	화 (29일)	수 (30일)	목 (1일)
		"IMF 천막" 장소: 민주광장 시간: 이른 10시 - 늦은 5시	
		제3차 여성노동자 고용 안정 및 실업대책 촉구 쉼 위한 결의대회 장소: 국민회의 당사 앞 시간: 늦은 3시	
야외영화제 "공포 & Sexuality" 「Shining」 - 스타리 큐브릭 「Serial Mom」 - 존 워터스 장소: 백주년 앞 시간: 늦은 7시부터	취업강당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 취업괴담" 장소: 논지당 시간: 늦은 6시	야외영화제 "공포와 Sexuality" 「Scream I」 - 웨스 크레이븐 「천상의 피조물들」 - 피터 잭슨 장소: 백주년 앞 시간: 늦은 7시부터	강연회 "여성신규실업의 현황과 대응책" 강연자: 한국여성민우회 장소: 상대별관 B103호 시간: 늦은 6시



IMF 천막 (9월 29일 - 10월 1일, 민주광장)

취업이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막상 취업의 문제에 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답답해 하고 있지만은 않은지...

그 답답함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여성취업의 문제가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느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구체적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봐요.

"여성의 일할 권리를 봉쇄해버리는 이데올로기를 없애버리자!" - (먹물이 든!) 물총쏘기

"답답해! 나도 한 마디 하자!" - 자유발언대

"우리도 일하고 싶다!" - 가상 취업원서 쓰기

"취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자!" - 한국여성민우회 발간 취업수첩 판매

"실업대책을 수립 해라!" - 함의 엽서 쓰기

"여성의 현실을 보자" - 다큐멘터리 비디오 상영

"이런 건 어때요?" -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고실업 시대 경제력 창출을 위한 여성모임 FREWAR

취업간담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 취업괴담" (9월 29일, 논지당)

경제위기 운운하는 말들이 요즘 들어 부쩍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새삼스럽게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분명히 IMF이전에 여성들에게 가능할 수 있었던 취업의 문들은 이전 비탈 수도 없는 정도로 좁아져만 가고, 그뿐 아니라 여성 우선해고가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은 지금 대화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엄연히 또 다른 현실로 다가온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직업을 선택한 성공한 여성의 무용담이 아니라 현실을 아는 것, 구체적인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연세대학교 내에서 있어왔던 여학생처 주최의 취업간담회는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리라'라는, 성공한 여성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즉 여성들의 취업문제가 남성들과 다르게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개인적인 자아실현의 문제로 인식이 되어오면서 각자 학점과 영어에 신경 쓰는 결로 해결이 가능한 듯 생각되었으나 지금의 현실은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현실에 바탕한 용기만이 이 이 힘든 시간이 지치지 않게 버티어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아래 이번 취업간담회는 다양한 직업군에 진출하신 선배님들을 모셔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오시는 분 : 방정립(케이블 T.V PD), 문현숙(출판업), 오지현(디자이너), 이상아(간호사), 정경애(카페'고마' 창업), 이지희(사회단체 활동가)

강연회 "여성신규실업의 현황 및 대응책" (10월 1일, 상대별관 B103)

IMF로 대변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의 논리는 집요하게도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꾸어야 할지 모르는 채, 또는 간직해 온 꿈을 실현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이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지금 당신이 당신을 예비(여성)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당신은 또한 예비 실업자임이 거의 분명하다고 감히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취업과 함께 실업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만약 당신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위에 성을 쌓는 꼴이며, 현실을 눈감아 버리는 환상그리기에 불과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일자리 하나 보장받지 못하는 신규 실업자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현실의 냉혹함에 마음이 쓰리겠지만, 언제까지나 개인의 문제로 물려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 억지로 낙관적으로 보려고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전망을 세울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감각이란 '그냥 열심히 준비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사상누각(沙上樓閣)적인 생각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사회의 문제로 돌려 개인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조롱하는 그런 자세도 아니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고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자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그 안에서 사고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민우회에 모아진 실례들은 그러한 고민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 강력한 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연회가 냉혹하지만 또한 위안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즉, 객관적인 현실은 분명 암울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제임이 즉,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부각됨으로써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야외 영화제 "공포와 섹슈얼리티" (9월 28일, 9월 30일, 백주년기념관 앞)

초기 공포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대략 두 갈래로 참여화되었다.

한 측은 그저 저속하고 속물적이며, 지저분하고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것을 보는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기성 관객층과 그런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좀더 자극적이고 으스스하고 짙은 공포영화를 보기 위해 일주일간의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집어던지고, 주말마다 팝콘을 싸들고 친구들과 극장에 모여 밤을 새는 젊은 관객층들로 나뉘는 것이다. 굳이, 영화사를 출지 않더

라도 만일 당신이 온 가족이 오붓하게 TV앞에 모인 어느 화평한 일요일 저녁에 난데없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공포영화를 비디오테크에 쏘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가족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공포감은 거의 테러에 가까운 수준일 것이다.

그만큼 공포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이중적이다.

한편에는 악몽보다 끔찍하고, 현실보다 처절한 공포를 본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피하고만 싶어지는 낯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현실에서 비롯되는 온갖 긴장과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보다 화끈하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풀고 싶어지는, 은밀한 매혹에 대한 추구가 있다. 오히려, 은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도 모르는 세계에 빨려드는 긴장감에 대한 매혹은 공포영화가 가장 잘 이용하는 판타지의 두가지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판타지의 두 측면은 우리가 현실의 긴장을 풀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 행위의 일반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포영화만이 갖는 매력, 더군다나 공포영화가 유독 열광적인 젊은 관객층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포영화의 카니발적(축제적)인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록키호러 픽처쇼에 몰려든 컬트 관객'을 보기 위해 태평양을 건널 필요까지는 없다. 꼭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러야지만 밤자리를 편안히 할 수 있던 어릴 적 '전설의 고향'의 체험이나, 부모님이 놀러가고 없는 친구집에 모였을 때, 혹은 MT에 간 친구들이 모두 술에 골아 떨어지고 단지 호기심어린 몇몇의 눈동자가 굴러 다닐 때, 반드시 공포영화를 봐야하거나 온갖 과담을 털어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뭔가 빠진듯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그것은 공포영화의 카니발적인 측면과는 별래야 될 수 없는, 오히려 카니발성을 가장 강력하게 지탱해준다 할 수 있는, 뒤편에서도 공포영화가 가장 잘 써먹는 서사방식중의 하나인 억압된 것의 과잉과 귀환테제를 빼놓았기 때문이다. 이 테제속에서 인류가 억압해 온 모든 것들은 억압이 가져온 공포를 상기시키며, 역으로 더욱 초월적이고, 극단적인 공포의 방식으로 억압에 대한 가공할 복수극을 전개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에서 억압된 여성의 달팽길 없는 원혼은 여러 가지 한을 품은 귀신들로, 혹은 현실에서 갖지 못한 권력보다 더 초월적이고 강력한 힘을 얻은 둔갑한 여우들로 형태를 바꿔 기존 질서나 가부장제 도처에 출몰하며 이를 교란시켜 왔다. 억압된 것 자체이면서 동시에 가장 활발한 복수극의 활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섹슈얼리티다. 달리말해 섹슈얼리티는 억압된 모든 것들의 괴물스러운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그것이 억압된 정도만큼)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처녀귀신이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적인 남성에게 두려운 것은 이 귀신이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유혹해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며, 구미호의 꼬리가 아홉 개나 되는 것은 여성이 해계모니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이 그만큼이나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통렬한 복수와 축제의 한마당에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은 부디 식칼대신에 칼을 꺼내고 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시기를...

현실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없다고.....

「샤이닝 Shining」 스탠리 큐브릭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걸작,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소시민이 한편으로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청운의 꿈을 부풀리며,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생계의 해결(아버지가 변변찮은 작가 지망생이다)을 위해 유령이 깃든 호텔의 관리인으로 뭉게 되는 일주일 간의 기록.

영화는 공포영화의 가장 상식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답게 여성과 아동의 억압과 학살에 기초한 미국 중산층 가족질서와 그런 가족주의에 근간한 아메리칸 드림(영화에서는 유령호텔로 설정된)의 허구적인 신화와 맹목적인 광기를 공격하고 해체한다. 모든 탈출 가능한 수단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순간들의 불안감. 한마디로 미국 자본주의의 가부장제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타 들어가는 순간과 같은 긴장감의 창출과 압축적인 극의 전개를 통해 보여주는 영화.

「씨리얼 맘 Serial Mom」 John Waters 감독, 1994, 90분

공포영화는 무서워서 못보겠다는 분들을 위한 영화. 아무런 문제없는 평화롭고 화목한 한 중산층 가정의 딸 그대로 멀쩡한 아줌마가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주부에게 부과된 의무들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온갖 수다스런 헤르프와 급기야는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마는 중산층 주부의 도덕관의 혼란. 또한 이러한 행위에 열광하는 언론과 대중들, 아이러니한 이 현실에 대해 매우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 코믹판타지 호러무비.

선댄스 영화제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미국 인디 영화계의 거장인 존 워터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은 80년대 미국 슬래셔 장르(레이전 시대의 보수주의를 비꼬며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보수주의에 몰들어 가던 공포영화의 가장 전형적인 변화와 불안을 대변해주던 보수적인 남성 사이코에 의한 여성들에 대한 이유없는 연쇄 살인을 다루는 영화 장르)를 황당하고, 엉뚱하게 뒤집어 버린다.

주목할 것은 남성 사이코들에 의한 연쇄살인은 그토록 끔찍하고, 무섭고, 혐기적인 반면, 여성(더군다나 '엄마')에 의한 연쇄살인은 그렇게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며 축제적이라는 사실이다. 주부가 될 여성관객이라면 앞으로 가족주의 가부장제 속에서 한 가족의 엄마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실히 겪게 될 것이다.

「Scream 1」 웨스 크레이븐 감독, 1996.

영문학교수로 지내다가 헐리웃 B급 공포영화로 자신의 영화인생을 출발한 웨스 크레이븐(우리에게는 '나이트메어'와 '사랑과 영혼'이 잘 알려져 있다)이 공포영화장르 자체를 공포영화로 패러디하기 시작한 영화. 영화의 시작부터 공포영화에 대한 퀴즈들로 관객들과 끊임없이 향연과도 같은 게임을 펼친다. "13일의 금요일밤에서 살인자는 누구인가?... 살인자인 나는 지금 당신의 집 앞문에 와 있나? 뒷문에 와 있나?... " 이 공포영화로 가득 매워진 퍼즐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객들은 영화가 건네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공포영화를 본다는 것의 한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소리지르다가 숨쉴 겨를도 없이 진짜 살인자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살인자(죽음)는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바로 옆에 있으며, 공포영화를 많이 보아온 당신이 뻔히 짐작하는 그 누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모두가 용의자이며, 이 영화는 현실일 수도 환상일 수도 있다. 공포영화를 보는 당신은 영화의 밖이 아닌 안(그것도 한가운데)에 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그렇게 난해하고, 지적인 영화가 아닌가하고 지레 겁먹지 말기를...

『천상의 피조물들』 피터 잭슨 감독

국내에서 출시된 『데드 얼라이브』로 잘 알려진 피터 잭슨의 역작.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공포영화거장에 의해 만들어진 공포영화의 경계를 허무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전후 보수적인 영국 가부장제 이성애 질서 속에서, 숙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는 두 여성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다. 영특하고 재기발랄한 두 여성간의 사랑과 유토피아는 현실의 온갖 장애에 부딪히고, 천상의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유토피아에 가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존재를 지탱하게 해준 모든 꿈과 열망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택했고, 그것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현실(실화)이었기에 더욱 불안하고, 두렵고,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감동적인 드라마. 만일 당신이 『데드 얼라이브』에서의 난도질의 극한까지 간 피터 잭슨을 기억한다면, 그 카니발적인 악몽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다 떨쳐버리고, 가슴의 모든 부분을 열고 이 영화를 봐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를

소 · 개 · 합 · 니 · 다!!



우리는 이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를 비롯해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등의 몇 개 학단위가 모여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발족식을 가졌다. 이는 이제까지 한 번도 대학내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여성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아오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우리의 힘으로 찾고자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항상 노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은 간과되어 왔다. 가정에서의 가사노동부터 임노동까지 여성들은 이중 노동을 감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은 부차적인 것 정도로 인식되어 온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 내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는 여성의 노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즉, 여성의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여성의 의무로 이야기되어지고 당연히 되어왔던 가사노동의 측면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적인 영역 속에서의 노동을 이야기 함에 있어서 가사 노동은 여성들이 지당히 맡아야 할 사적인 영역으로 이야기되고 폄하되어 여성들은 이중노동을 감수하면서도 임노동 시장에서 차별받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는 '노동이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의 노동권을 여성의 시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발족식 이후 대학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여성국,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함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추구를 위한 7월 9일 1차 집회(국민회의 당사 앞)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가져 나갈 예정이며, 지난 7월 17일부터 1박2일 동안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개최하는 '예비취업여대생을 위한 캠프 - 여성의 현실, 몸으로 느끼고 희망을 조직하자!'를 함께 했다. 또한 서울시 실업대책본부의 청년·여성분과에서 개최한 실업대책간담회에 참가하여 여성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앞으로의 대안 모색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신규여성실업의 문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학연대는 신규여성실업자의 문제를 주축으로 하여 활동을 가져나가고자 한다. 현재 신규실업자의 수가 20만이 넘으며 신규실업자들의 문제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신규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며 일시적일 뿐이다. 신규여성실업자의 경우, 여성들은 아예 취업 원서조차 받을 수 없거나, 혹은 애써서 작성한 이력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는 상황들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간과되거나 정부의 일시적인 대책만이 난무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닥쳐온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목소리로 풀어나가야만 한다는 판단이 서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허구적인 통계치 속에서 신규여성실업자들의 문제는 목소리도 내기 전에 묻혀버리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어려운 경제 위기를 빌어 졸업을 하고 나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직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 되어 버리는 상황이고 정부는 낮은 실업율을 위해 그러나 것을 은폐하고 은근히 조장까지 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 이상 영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다고 해서 취업의 길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힘들어지고 남녀고용평등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업은 온 없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이기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광고에서 나오는 화려한 '커리어 우먼'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신규여성실업자 문제. 이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 불과 1, 2년 후, 또는 지금 당장(!) 나의 문제인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미봉책이나 대학에서의 지도자 육성 식의 교육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에서는 신규여성실업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부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수원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성균관대 총학생회

서울여대 여성학회 '낙개달기'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광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여라!!

「제3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됩니다.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국,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협회가 지난 7월부터 '4자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고민과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7월에 제1차 집회에 이어 8월에는 제2차, 이제는 제3차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9월 30일, 국민회의 당사 앞에 모여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또한 바로 우리 여대생들의 문제인, 여성신규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려 합니다.

이 문제가 오늘 내일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 : 1998년 9월 30일 (수) 늦은 3시

장소 :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

문의 :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 (361-3645)

예비취업 여대생 캠프

‘여성의 현실, 몸으로 느끼고 희망을 조직하자!’를 다녀와서

김신현경 (정의 4)

취업하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사실 여성의 경우 IMF 이전이라고 해서 사정이 많이 다르지도 않았다는 게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요새는 21세기가 핑크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들 특유의 섬세함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이점을 살려야 한다고 많이들 떠들어대지만 ‘여성들 특유의 섬세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가 의문인 나로서는 이런 식의 문제 접근이 여성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여성의 현실에 입각하여 여성의 시각으로 정립된 구체적인 정보,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용기가 아닐까? 방학중에 있었던 여성민주회의의 예비



취업 여대생 캠프는 이런 면에서 나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었던 행사였다. 참여한 사람은 약 35명 가량. 솔직히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여성운동을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왔었다. 방학중이라 행사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우리 학교에서는 나와 함께 총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 2명이 참여하였는데 다들 나이가 꽤 찬 이들이었다.

처음 진행되었던 행사는 ‘나 표현하기-이미지 플래쉬’라는 것. 무수한 이미지

의 총체인 잡지를 훑어 나가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나 문자 등을 찢어서 준비된 도화지에 붙여 나간다. 다붙이면 이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이를 벽에 붙인 후 각자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기 쉽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의 꿈을 밝힌다’라는 시간으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 할 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앞으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 그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대체로 우리들의 꿈은 너무나 추상적이었다. 따라서 그 준비과정도 전무하거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거나 ‘대학 시절의 운동을 계속하는

연장선상에서의 일을 찾고 싶다’라는 등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삶의 목표라기 보다는 삶의 자세정도일 것이며 이렇게 훌륭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삶의 현상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십상인 것이다. 저녁식사 후에 진행된 ‘여성의 현실을 느끼자’에서 그저 환상 속의 캐리어 우먼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어떻게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다.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서도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구조... 이 절실함을 ‘선배와의 대화’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었는데 지하철 공사 역무원으로 일하시는 분, 페미니스트 카페를 창업하신 분,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 기자, 단체 활동가로 일하시는 선배분들이 우선 하는 일, 취업경로, 결정이유, 평소 스케줄, 남녀차별의 정도 등을 이야기해 주셨고 질의 응답이 끝난 뒤 원하는 선배님들과 조를 짜서 이야기를 했다. 사실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기보다 공부를 더하겠다고 결심한 나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보다 사회의 구체적인 한 단면들을 볼 수 있었다는 데서 더 의의가 있었으나 이들 직업군에 실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교에서 있어왔던 기존의 취업 간담회가 여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이기보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식의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식의 구체적인 자리가 학교에서 우선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밤까지 다른 학교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다음날 아침 쫓다는 게 역시 좋다는 걸 실감하며 가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살펴보고 취업팀과 실업팀으로 나눠 취업팀은 취직 후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고 대처 방안은 토의하였으며 실업팀은 현실 속에서 신규실업자가 될 우리들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제작하였다. 그런 뒤 대학로에서 퍼포먼스와 시위를 하였다. ‘남자도 힘든데 여자가 무슨...’이라는 지켜보는 한 아저씨의 아우 속에서 더욱 힘있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 우리는 여자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인간 ‘속’에 여성의 목소리가 이제까지 없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세상이 달라져요!!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과 청년실업 대책 수립을 위한
연세학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찬(교육95)

98년 9월 중앙도서관 앞에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과 청년실업 대책 수립을 위한 범연고인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서명합시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서명판을 내밀었다. 담배 한 대 피우려 나온 선배님께서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사실 서명을 한다고 그 선배님에게 당장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피곤한 얼굴이 갑자기 20대의 꿈과 희망에 찬 그것으로 바뀔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열심히 하쇼. 끝장을 꼭 보쇼. 서명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였다. 담배연기를 날리며 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을 대하고 많이 답답하였다. 그 선배님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세상이 달라져요!

대학인,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주요 인기학과와 8월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순수 취업자는 20%대에 불과했다. 대학원 진학과 입대자를 포함해도 취업률은 51.3%에 그쳤다....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으며, 대기업에 들어간 경우도 임시직(인턴사원)이거나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학생들의 취업난은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전국 4년제 대학 취업희망자들을 상대로 교육부가 잠정 집계한 취업률도 68년 이후 가장 낮은 50.5%였다. 취업재수생이 갈수록 누적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8월 26일자)

요즘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사실들을 끝도 없이 구구절절하게 떠들 필요도 없다.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디뎠지만 직장을 갖지 못한 신규 청년실업자는 18만여명에 이른다. 96년 63.3%이던 대졸자 취업률은 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해의 경우 50.5% 이하로 떨어졌다. 게다가 우리는 프랑스와 달리 사회보장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초고금리 사회다. 일단 실업자가 되면 단순 실업자가 아니라 사회적 파산자가 될 것을 뜻한다. 특히 지금의 청년실업자는 그들에겐 일할 기회가 주어지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 8월 초, '청년실업자 구제 지원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각종 공공사업과 인턴사원채용을 통해 4만 2천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발표한 '청년실업자 구제 지원책'의 내용은 당장 실업을 앞둔 대학인들의 시름을 덜기에는 너무도 한계적이다. 대부분이 4 - 6개월간 '최소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채용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게다가 4만 2천명 중 6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인턴사원 모집 계획에 8월 25일 전경련 관계자는 "200명 채용의사를 밝힌 그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불가 입장을 밝힌 그룹이 상당수이며 채용의사가 있는 그룹도 2백명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조차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을 들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각 그룹들은 "기존 인력의 고용조정마저 곤란한 상황에서 인턴사원이라고 해도 신규채용은 업무를 내기 어렵게 됐다."며 신규채용에 대한 분위기가 급랭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타의 조사속에서 더욱 확인해진다. 최근 취업전문지 '인턴'이 30대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9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공채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밝힌 기업은 19개에 불과했다. 7백80개 기업은 아예 채용계획이 없고 나머지 1백여 기업도 수시채용이란 원칙만 세워 놓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졸업이 지나면 대졸 신규청년실업자의 수는 40만을 넘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대학원 진학 및 군 입대자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군입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행복하다. 1,2학년생들은 IMF가 끝날때까지 군대라도 가면 된다면 병역을 이미 마친 4학년들의 경우엔 당장 취업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으며 원서낼 곳도 없는 현재의 상황은 '절망'일 뿐이다.

그러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지는 말라.

"프랑스 정부의 인식을 전환시킨 것은 바로 그 청년예비실업자인 학생들이었다. 프랑스에선 대학 졸업자들이 무려 20 - 30%에 이른다고 한다. 실업은 바로 학생들의 문제였다. 죽을 때까지 사회에 빌붙어 사는 무의미한 존재. 그들을 가장 못 견디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다.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당 정부는 2월 초 보수파와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보상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한겨레 21)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충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연령계층은 20~29세라는 보고가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더불어 기존 노동자의 이직(移職)이 감소한 결

과, 이 연령계층의 신규학졸자에 대한 대체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향후 99년도 상반기에 절정을 이룬 실업률은 3~4년간 지속되고 이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취업자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그러했듯이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대선이 끝날 때만 약간씩 들쭉지는 정치권들의 비리재산,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재벌들의 해외온락재산,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군사비, 그리고 당장의 실업의 고통속에 빠져 들어야만 하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이땅의 수많은 민중들, 왜 정부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공권력으로 진압하면서, 신규채용을 거부하는 재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바꾸어야만 하는 현실이다.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이 곧 죽음인 모든 민중들에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비추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움직였던 대학, 이제 대학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청년 실업자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일할 권리'를 위해, 생존의 권리마저 잃어버린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지금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라'며 전체 프랑스 민중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프랑스 전체를 바꿀 수 있었듯이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잠깐

웃기지도 않는 우스개 소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비행기에 한 여자가 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여자는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며, 죽기 전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밝혔다. "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느 남자가 나타나 나를 진정한 여자로 만들어주었으면....."

그런데 왜 일인가? 갑자기 어느 멋진 남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

"내가 너를 진정한 여자로 만들어주마!"

앗! 그랬더니 그 남자 자기의 셔츠를 벗기 시작했다. 여자는 숨을 죽이면서, 남자를 힐끗 보며 기다렸다.

드디어 그 남자는 자신의 셔츠를 벗어던졌다.

"아! 이거나 다려!!"

아주 유능한 의사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불행히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아들은 살았지만 아주 위급한 상태였다. 사고를 목격한 주위 사람들은 빨리 119에 연락해서 앰보런스를 불렀다.

위급한 상황이라 응급실 담당자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황급히 달려오더니,

"앗! 이 환자는 나의 아들...."

그런데 유능한 의사인 아버지는 죽지 않았나?

아들과 의사와의 관계는?

응급실에 달려온 의사는 바로 아들의 어머니였다.

성별 분업에 의해 각기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은 대중매체나 가부장적 역사의식으로 부여된 하나의 신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신화들을 절대인양 믿고 있지요? 요즘, 경제위기와 취업대란 속에서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여성은 원래 집에 있어야 할 존재이므로, 있던 직장에서는 쫓겨나거나 아니면 아예 사회적인 노동으로부터 원천봉쇄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심하면 무심코 던지는 우스개 소리. 그 속에는 너무나도 가슴아픈 '현실'이 담겨있어?

진단서

궁금합니다!!
여성노동에 대한 5가지 질문과 답변

▶IMF라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전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 은행 퇴출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정리 해고와 그로 인한 많은 수의 실업자의 양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되거나 간과되는 것이 여성 우선 정리해고의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하는 마당에..."라는 식의 논리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은행의 명예 퇴직 대상자 1220명 중 여성이 1000명인 경우나 한국통신이 안내요원 전원이 여성인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강제 퇴출한 경우,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로서 현대자동차 파업해결의 중재 안에서 직원이 여성 전원인 식당 조합원 180여명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여성 우선 정리해고는 도처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성 우선 정리해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여성의 노동권은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에서부터 임노동까지 이중적인 노동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불합리한 성역할 분담과 가족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가부장제가 결합되어 '여성' '우선'정리해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성 우선 정리해고는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전사회적인 여성 불평등이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권 보장은 여성 '우선' 정리해고 배후에 감춰진 불합리한 성역할 분담과 성고정화 그리고 그것이 가하는 배제와 억압에 대해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누군가를 전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위기 극복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Q1.
'노동권'이
아니라 왜
굳이
'여성노동권'
을 말하는
것인가요?

Q2.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파견근로제가
무엇이고,
지금의 여성
실업 문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근로제란 파견회사가 소속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A회사가 자체 고용한 노동자 갑을 B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B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할 경우 A사는 파견사업자, B사는 사용자사업자가 되고, 두 회사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노동자 갑은 B사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견근로제는 우선 계약의 주체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와 사용자업체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교섭과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와 사용자주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자주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파견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견된 노동자는 승진과 승급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규직 임금의 70-80%만을 임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파견된 노동자는 사용자주가 지불하는 임금 전부를 가질 수 없으며 파견업체를 거쳐 그것의 70-80%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의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이 더욱 더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은 전체 여성의 5.8%에 지나지 않으며, 62.7%에 이르는 여성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근로제란 그러한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파견근로제의 시행으로 현재 약 22만 5천명에 달하는 파견노동자(현재는 청소, 경비업만이 파견근로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파견근로는 불법입니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특히, 가사형태로 직장을 그만둔 가정 주부나 고령자 등 단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형태의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파견근로제의 취지에 대해 선심을 쓰듯 큰소리 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파견근로 대상업무 27개 가운데 영양사와 컴퓨터 보조원, 타자원, 학원강사, 전화교환원, 비서 등 여성인력이 70-80% 이상인 업무 분야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몇몇 여성 중심 업무에까지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어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통계 상에서 실업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조사기간 1주일 중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의 개념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실업상태에 가까운 다수의 무급가족종사자와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취업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구직활동을 해도 구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직을 포기한 상태인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임시직, 무급가족종사자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가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못하거나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구직활동을 단념하게 되어 실망실업자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정부의 실업 통계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하는 가정주부까지도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로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실업률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 여성의 구직활동을 방해하거나 여성노동자를 전업주부화시키려는 의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이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은 실업률을 산정할 때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고, 여성 노동자가 정리해고가 되었다 해도 더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률 통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도들은 '여성의 위대한 희생정신'이나 '주부의 의무' 등의 수사어구 등을 강조하는 속에서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경제위기에 대한 많은 실업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여성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3번에서 지적했듯이 여성의 실업은 수치상으로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가장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우선 정리해고나 여성의 실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실업대책 대부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그 자격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며 그 직종 역시 남성 직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 여성 세대의 비율이 약 20%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은 가족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실업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나, 노동부에서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과정'을 개설해 취업

Q3.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상에서는 여성 실업의 문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그리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통계수치에서는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훈련기회를 주고 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여성가장을 위한 공공부조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처음에 실직여성가장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고려되지 않았던 상황에 비하면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여성의 노동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여성 우선 정리해고와 같은 식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번번히 '여자가 양보해야지'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문제제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제까지 무시되었던 만큼 요구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한 요구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여성노동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전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보다 많은 여성노동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들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의 축소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을 가사노동의 의무에 한계 지으며 여성의 임노동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식으로 여성의 노동권을 폄하하는 노동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입니다.

Q5.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 중심직종의 퇴출이나 여성 우선 정리해고 등을 막아내고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장!

‘난 왜 떨어졌지?’

정보공개 청구권을 주장합니다.

A: 난 ○○사에 원서를 냈어. 영문과에, 토익 점수도 900점이 넘고, 학점도 3.5가 넘고, 1년 동안 교환학생도 갔다 오는 등, 취직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류전형에서 떨어져 버렸어. 내 동기 남자애는 나보다 학점도 토익 점수도 안 좋운데 서류전형은 물론이고 2차 면접에까지 붙어서 지금 마지막 3차 면접을 준비중인데 거의 합격이나 마찬가지지. 난 왜 떨어졌지?

B: 난 원서도 안 준다는 걸 강신했기 때문에 ○○사에 넣었는데, 다행히 면접보라고 연락이 오더라구. 며칠동안 면접 준비를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 신문도 이 홀딩이 열심히 봤는데 옆에 있던 남자보다는 질문을 많이 안하더라구. 그래도 묻는 말에는 내가 아는 거 다 동원해서 성실 성의껏 대답했는데 그 남자는 불고 난 떨어졌더라구. 너무 불공평해. 난 떨어뜨린 이유가 도대체 뭐야?

우리는 애써 취직 준비를 하고 여자자기 뛰어나다며 원서를 넣지만, 도대체 왜 자꾸 떨어지거나 하는 것인가? 물론, 지금은 어느 누구나 다 취직하기 어려운 시절이다. 회사가 뽑지를 않는다면, 아니면 뽑는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이 안된다던가....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그 '합리적인 기준'이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니, 과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존재하는가? 혹시,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던가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느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이든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국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 가 왜 입사 과정에서 떨어졌는지 기업에게 그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여성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은 기업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외모 때문에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이 아주 먼 얘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함으로써 현재 한국 기업들의 고용 상 성차별을 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기준' (물론, 그 합리성이 누구 기준에서의 합리성이냐라는 문제도 있지만)을 만들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꼭막힌 사회?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내자!

우리를 현혹하는 '직업'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산 출판사 편집자 문현숙

1. 당신의 직업 명칭은?

출판인, 더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편집자입니다.

2. 당신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따라 저자나 역자를 선정하고 섭외를 합니다. 원고가 완성되면 책에 대한 컨셉을 다시 정리한 뒤 표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본문 편집(레이아웃, 교열과 교정원칙)은 어떻게 할지 독자의 성향에 따라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실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교열과 교정입니다. 이 작업을 마무리하면 인쇄와 제본을 거쳐 책이 나오지요. 저는 현재 이산출판사를 꾸리는 입장이라 책 만드는 전 과정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편집자가 되려는 분은 출판사에서 제일 먼저 교정 보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 이 직업을 얻는데 요구되었던 학력, 기술, 경력 혹은 노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연세대 정외과 84학번이고 1988년도 졸업을 했습니다. 입사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술이라면 모든 분야를 두루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출판사로 국한하여 말씀드리면 인문적 소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디자인 감각까지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경력이라고 했을 때 대학생인 여러분에게 아직 없을 것 같지만, 만약 학보나 교지, 학회지 등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 있습니까?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제일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는 독해 정도 가능하면 되고요. PC는 꼭 다룰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고 매킨토시를 다룰 줄 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5.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1988년 이 일을 하게 된 경위는 친구따라 강남 간 격입니다. 대학 다닐 때는 전혀 직업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 그 당기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졸업 후 먹고 살아야겠다

는 생각이 먼저였고, 마침 친구가 편집학원을 다니길래 저도 편집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겠지만 이 일을 한 지 11년이 되었지만 후회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해볼 만한 일입니다.

6. 구체적인 취업경로를 설명해 주세요.

편집학원의 추천으로 한길사에 입사하여, [사회와 사상]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 보다는 행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취직하느라 고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요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7. 평상시 당신 일의 스케줄은? (일주일)

대개 책의 진행과정에 따라 일주일의 스케줄은 바뀝니다. 요즘은 교정과 표지 만들기, 인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 평상시 하루 일과를 설명한다면?

잡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일을 하는 편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영화와 책을 봅니다.

9. 당신의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져 삶의 기쁨을 모르고 지낼 수 있는데 이 직업은 책이 한 권 한 권 태어날 때마다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됩니다.

10.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9번 답처럼 너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11. 남녀차별은 얼마나?

남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하지만, 제반 제도적 측면에서는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12.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대해 가지는 생각(선입견 혹은 고정관념)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편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존중해 주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13. 당신의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와 의논합니까?

저는 주로 남편과 상의합니다. 현재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 초봉과 봉급 체계는? (혹은 수입 정도)

다른 직업에 비해 보수가 박한 편입니다. 여유있는 직업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둘째를 출산한 날 때는 연봉으로 1,600만원 정도 (9년 경력) 받았었습니다. IMF 되기 전에는 초봉이 아마 월 70만원 정도 됐는데, 아마 요즘은 출판사가 어려워져 그 이하일 것 같습니다.

15. 이 일이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 권리의 범주는?

16. 당신에게 있어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

삶의 전부와 같다면 지나칠까요?

17. 후배가 이 일을 장래에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 세 가지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이 사람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앞에서 이야기한 기술 부분을 공부해두면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간호사 이상아

1. 당신의 직업 명칭은?

간호사

2. 당신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환자를 간호하는 일 -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심신의 회복을 돕는다. 낮선 병원환경에 있는 환자들의 안위를 챙기고 치료와 검사 등의 행정적 문제 해결, 치료 행위(투약, 신체적 문제 발견), 의사 업무 보조

3. 이 직업을 얻는데 요구되었던 학력, 기술, 경력 혹은 노력은 무엇입니까?

4년제 간호대학이나 3년제 간호전문대 졸업생이며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자이면 가능

4.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 있습니까?

학생 실습과정에서 익힐 수 있다.

5.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과선택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에 서였고 졸업시기에는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싶었다.

6. 구체적인 취업경로를 설명해 주세요.

1996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공채 입사

7. 평상시 당신 일의 스케줄은? (일주일)

보통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Day, Evening, Night) 근무시간은 보통의 경우 수간호사가 정하곤 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은 한달 간격으로 근무시간이 바뀌는데 night근무는 한 달에 5회 정도 한다. 꼭 휴일에 쉬지는 않지만 한 달에 평균 5-6일은 쉰다.

8. 평상시 하루 일과를 설명한다면?

Day근무 때에는 아침 7시쯤 출근하여 3시 30분 정도에 퇴근하고 퇴근 후에는 자유시간! 보통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하곤 한다. Evening근무 때에는 오후 2시쯤 출근하여 밤 10시 정도에 퇴근하는데 오후 2시까지 주로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9. 당신의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근무시간이 일정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잔업이나 근무시간 외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없다. 또 늦게까지 남을 경우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볼 일이 있으면 evening 근무를 하면 된다.

10.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휴일에 남들처럼 쉴 수 없다는 것과 교대 근무이므로 생활리듬이 불규칙하다.

11. 남녀차별은 얼마나?

간호사는 현재 여성들만이 하고 있기에 남녀차별은 없다.

12.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대해 가지는 생각(선입견 혹은 고정관념)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은?

아무 생각없이 의사 뒤를 따라다니며 지시에만 따르는 여비서의 이미지 내지는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주로 하며 자신의 업무에는 불성실한(쌀쌀맞은) 간호사, 간혹 백의의 천사를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TV드라마나 소설 등에서 많이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병원에서 유니폼을 입은 모든 여자는 다 간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병원 안에 유니폼을 입은 여자들 중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업무 중에 의사보조업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종의 유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환자와 24시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간호사이므로 환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필요한 경우 의사나 다른 의료진들과 상의하여 해결해 줄 수 있다.

13. 당신의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와 의논합니까?

동창들이나 친구들, 선배간호사

14. 초봉과 봉급 체계는? (혹은 수입 정도)

수습 기간 3개월 간은 약 80-90만원 (보너스 제외)

15. 이 일이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 권리의 범주는?

글쎄요, 정해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6. 당신에게 있어 직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으로 경제적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17. 후배가 이 일을 장래에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 세 가지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학과 공부를 충실히! (본인은 학생시절 학과공부를 멀리한 탓에 고생을 좀 했다우)

대인관계를 넓게 하고 사람들 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보길! (본인의 경우 농활은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병원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

대우를 받으려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것이 좋을 듯! (일종의 서비스직이기도 하거니와 어느 직업이건 내가 위에 서려는 생각은 사회생활 실패의 지름길일 것이다.)

케이블 TV 프로듀서 방정림

글을 들어가기에 앞서 저의 현 위치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취업간담회에 선배 입장으로 서기도 속스러운 게, 저의 경우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1년밖에 안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경우, 한 달밖에 안된 풋내기거든요. 게다가 회사 상황조차 안 좋아 후배님들의 사기만 꺾어 놓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들지만, 현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후배님들에게는 사회의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고, 저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다시 한 번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1. 당신의 직업 명칭은?

프로듀서입니다. 보통 PD(Program Director)라고들 부르죠.

2. 당신이 하는 일은?

저는 현재 케이블 TV에 프로그램 공금을 하는 PP(Program Provider) 채널 중에서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CH29 센츨리 TV(CTN)에서 제작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D(Assistant Director) 생활을 하며 일을 배워나가고 있죠.

3. 이 직업을 얻는데 요구되었던 학력, 기술, 경력, 노력은?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방송사의 경우 많은 능력(상상, 영어 등)을 필요로 하고 취업문이 매우 좁습니다. 저 역시 방송사 입사를 준비하던 도중 케이블 TV의 제작인력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죠. 케이블TV나 프로덕션의 경우 공중파 방송과 같은 상식이나 영어 등의 시험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학력, 적성, 경험 등에 대해 면접을 봤습니다. 이 계통으로 취업을 하려면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방송에 대해 미리 배워두는 것이 좋은 경력이 되겠죠.

4.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 있나요?

저의 경우 회사에 와서 일을 배울 기회가 되었지만, 보통의 경우 PP나 프로덕션의 제작인력으로 취업을 하려면 방송 아카데미 류의 방송기술전문학원에서 방송일을 배우는 경우가 많죠.

5.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저의 성격과 일에 대한 막연한 매력으로 방송제작일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막연했지만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고민의 수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큐에 대해서는 일을 접하며 고민을 키워 나가게 되었구요.

6. 구체적인 취업경로를 설명한다면?

일간지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작 인원으로 뽑히지 못했는데, 이후에 회사 내에서 일을 하다보면 제작일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기획실로 들어오라는 회사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입사했습니다. 결국 마케팅, 홍보 일을 거쳐 하고 싶었던 다큐 제작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7. 평상시 당신 일의 스케줄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따라 저의 스케줄도 바뀝니다. 지금 진행중인 60분물의 경우 3종의 한 편 정도를 제작하는데, 기획, 섭외, 촬영, 가편집, 종합편집, 더빙, 믹싱 등의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이 완성되죠. 기획 단계에서는 아이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위해 PC나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섭외 단계에서는 모든 끈과 모든 연락망을 이용해 출연자를 섭외하게 되죠. 다큐의 경우 기획과 섭외가 그 작품의 질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촬영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야 하고, 출장도 가야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삶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보통 편집실에 쫓박혀 밤새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8. 평상시 하루 일과

앞 질문의 대답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9. 당신의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은?

세상의 많은 직업 중에서 자신의 고민과 자신이 담고 싶은 것을 대중에게 바로 전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창작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소박하게 얘기하자면 참사 정신을 갖고 한 아이টে 몰두해서 작품을 만드는 매력이 있죠. 게다가 그 작품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품이라면 더욱 즐거운 작업이 되죠.

10. 당신의 일에서 가장 나쁜 점은?

미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이 워낙 노동강도가 높거든요. 여성으로서 저의 고민이라면 출산 후에도 회사에서 연출 파트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들고요.

11. 남녀차별은 얼마나?

회사에서 남녀차별은 별로 심하지 않은 편이라 생각했죠. 여자 간부도 많았고, 여직원도 많이 채용한 편이었는데, 정리하고 시에는 남녀차별이 드러나네요. 일관된 기준 하에서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직장인 있는 여성의 경우 해고 1순위가 되었으니까요. 일에서의 차별을 얘기하자면, 우선 일이 고되다 보니까 여자 스텝을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작부를 희망할 때도 '너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먼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 더욱 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압박관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알게 모르게 더 거친 듯이 행동하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니까요.

12. 사람들이 당신의 직업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사실 다크 PD의 경우, 순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열정적인 분들도 많구요.

13. 당신의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와 의논하는가?

일단 제작 시스템에서 연출파트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 사수한테 하는 경우가 많죠. (앗!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군대 용어를 쓰게 됐는데, 사실 회사에서 무의식 중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14. 초봉과 봉급체계는?

말 꺼내자니 한 땀한 땀이 나올 것 같군요. 현재 5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거든요. 케이블TV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일의 노동강도에 비하면 봉급은 낮은 편입니다. 저의 경우 초봉 90만원에 상여금 600%였는데, 한번도 제대로 월급을 받아 본 기억이 없군요. 하하!

15. 이 일이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 권리의 범주는? (퇴직금, 출산휴가, 병가, 생리휴가, 고용보험, 의료보험, 육아휴직 등등...)

16. 당신에게 있어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

이건 요즘 제 자신에게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회사가 어렵다보니 진로에 대해 자연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경제적 문제나 결혼, 출산, 육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다 보면 사실 사무직을 찾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다크가 좋아서, 그리고 제작이 좋아서 사실 그리 영악하게 직업을 고민하게 되지는 않는군요. 그저 단순히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장래 입봉하게 되면 하고 싶었던 작품(문화와 관련된 많은 아이টে)을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문제가 생긴다면...음...다큐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극영화에 비해 다크 장르는 학문적으로 거의 논의가 되고 있

지 않거든요. 다크와 관련된 잡지 하나 없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하여튼 저에게 있어 직업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듯 하군요.

17. 이 일을 장래에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 세가지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다크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속으로 많은 칼을 갈아두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보십시오. 이건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데,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소위 기능적인 잣대로 말하자면) 인생을 투자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후배님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있게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짧은 글이 이 일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희 디자인실 디자이너 오지현

1. 당신의 직업 명칭은?

Designer (개인적으로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말하지요)

2. 당신이 하는 일은?

매년 두 번 (3월, 10월) 파리에서 collection을 하는데, 그 collection에 나갈 옷을 디자인하고, 소재도 정하고.... 샘플 진행까지 맡아 하고 있지요. 주로 동대문 시장, 시장에 나가 collection에 사용할 만한 소재조사도 하구요.

3. 이 직업을 얻는데 요구되었던 학력, 기술, 경력, 노력은?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얻기까지의 과정...

학력의 제한은 없었어요. ESMOD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에선 ESMOD처럼 한가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안하고 학원이라고 하던데...) 이 학교 면접 때 오히려 고등학교 갓 졸업하자마자 어린 나이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지요. 3년제이기 때문에 졸업한 후의 나이가 취업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입학할때만 해도, 물리학과, 회계학과...중 전혀 패션과는 상관없는 과를 졸업하고 자신의 진로를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요. 빠른 결정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ESMOD에서 배운 패턴, 봉제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회사생활 특히 디자이너



라는 직업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요. 단지 그림만 잘 그린다고 훌륭한 디자인이 나오는게 아니지요. 자식 디자인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려면, 패턴에서부터 세밀한 봉제법까지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밤, 낮 가릴 것 없이 일정 기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소화해내야 했고,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극복해내기 위한 나 자신만의 물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 내 일에 대한 집착, 인내심... 정말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2년 동안 S.F.A.A. Helper로 활동했었어요. 기업연수는 학교 밖의 현실 세계와 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디자이너의 허와 실을 알게된 계기이기도 했지요.

4.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 있나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옷과 관련된 패턴, 봉제기술은 기본적으로 필요했고, 보통사람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요.

5.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천편일률적인 대학공부가 따분하게 느껴졌어요. 대학 생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젊음의 향기가 부럽긴 했지만..... 전문적인 걸 원했고, 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분야는 '디자인'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사실 대학 캠퍼스 생활이 눈에 아른거려 갈등을 많이 했고, 제 결정에 강한 자신감을 얻기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6. 구체적인 취업경로를 설명한다면?

3학년 때 'Sa Fille' (Lee Young Hee 선생님의 딸인 이정우씨의 브랜드)에서 기업연수를 했고, 남들보다 힘 잘 쓴다는 이유로(?) 졸업 후에도 절 잊지 않고 불러주셨지요.

7. 평상시 당신 일의 스케줄은?

3월, 10월 일 년에 두 번 있는 collection, 해외 수출일로 원단 수집, 수입, 상품생산, 가능디자인, 매장 디스플레이로 일주일은 금방 지나가지요.

8. 평상시 하루 일과

요즘은 collection 준비 때문에 샘플 완성에 다른데 신경 쓸 여념이 없지만, 조금 한가해지면 시장조사도 하러나가고, 잡지도 보고... 그렇게 지냅니다.

9. 당신의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은?

collection 때 맞춰 파리에 가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collection이 끝나고 나면 뭔가 또 한 가지를 해냈다는 성취감, 기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10. 당신의 일에서 가장 나쁜 점은?

사생활이 없어요. 엄마는 하숙집 주인 아줌마...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회사일에 지쳐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바쁘고, 가족들이랑 완벽한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회사를 때려치우기 전에 제 사생활이란 존재하지 못할꺼예요.

11. 남녀차별은 얼마나?

남녀차별을 느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엔 경비아저씨, 패션실장님 외엔 모두 여자이기 때문이지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녀차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2. 사람들이 당신의 직업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디자이너하면 굉장히 환상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상 앞에 그림만 그리는....

하지만 노가다 그 자체예요. 그래도 나쁜 이미지로 박혀있지 않은 건 다행인가?

13. 당신의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와 의논하는가?

회사일은 회사내에서 해결하는데, 그로 인해 감정이 벗어나게 되면 내 인간적인 면을 체크해보기 위해 엄마, 친구들과 많이 얘기하죠. (참고로, 내가 회사에 들어온 이후 표정이나 말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4. 초봉과 봉급체계는?

연봉제. 1년 지날 때마다 10%씩 월급 인상.

15. 이 일이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 권리의 범주는?

뭘 바라나? 어떤 분야든 법적으로나 뭐로나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있나? 참 괴로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는 국가가 패션을 잘 떨어주는 편입니다. 스폰서해주는 업체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구요. 부럽지요.

16. 당신에게 있어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

'돈벌이' 의미보다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정도 하고 할 수 있지요. 내 일에 지쳐 내 일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런 감정이 생기기 전에 꼭 넉넉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문제이지요.

17. 이 일을 장래에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 세가지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①외국어 하나 정도(기본으로 영어!)는 꼭 마스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ollection을 하려면 필수불가결한 요소지요.

②정보수집, 적극적인 태도 - owner들에겐 좋은 이미지로 남겠지요.

③자신의 진로방향에 대해 세밀하게 체크하고 분석해야 하지요.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 경영자 (중 1명) 정경애

1. 당신의 직업명칭은?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

2. 당신이 하는 일은?

카페 경영 및 서빙, 요리, 청소, 행사기획, 장부정리, 아르바이트 관리, 은행업무, 고마 사람들과 싸우기, 함께 하기 사랑하기

3. 이 직업을 얻는데 요구되었던 학력, 기술, 경력 혹은 노력은?

별다른 학력, 기술, 경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 카페에서 일해 보았거나 요식업 관련분야에 종사했다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차나 식사, 안주, 칵테일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거나 경험이 있다며 좋다. 그러나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다. 이 일은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고마를 하는데 있어 특별히 요구되었던 것은 함께 하기 위한, 잘 해보기 위한 노력이었다.

①고마는 3명이 운영한다. 1명의 기혼과 2명의 미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3명의 각자 개성과 일하는 방식, 문제를 푸는 방식, 고마에 대한 생각 등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키고, 싸우며 함께 하기 위한 관계 만들기에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만났다고보다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합한 일을 찾았다는 것이 정확하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일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우리는 거금을 들여 성장상당 과정을 같이 했고, 서로 알고 나를 알리면서 힘들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싸우고 갈등하는 폭풍같은 시절을 보냈다. 그 때 아무도 서로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았기에 고마를 만들 수 있었다.

②이 일(cafe)을 하기 위해선 자금이 있어야 한다. 저축해 둔 돈이 없었으므로 은행대출을 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빌리기, 집에서 빌리기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여기서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다. 여자이고, 결혼하지 않은 것이 대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③이전에 cafe를 해 본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했다. 주로 cafe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많이 받았고, 나머지는 발로 뛰면서 알아 보았다. 또한 우리는 동업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동업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세미나도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갈등은 큰 문제나 확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사하고 웃기는 부분에서 풀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이런 치사하고, 아주 작고, 말이 안된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이야기라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투자 정도, 분배, 파산시.....등등과 카페운영규칙, 처벌까지 모두 문서화시키고 공증받았다.

4.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 있는가?

- 손님말을 잘 들어주고 편안하게 해 주는 것
- 자식 카페의 특징을 살리는 것 (분위기, 음식)
- 경영을 위한 약간의 회계능력
- 나는 시녀, 상담가, 친구이지 사장이 아니다.
- 사람을 좋아하면 금상첨화
- 특별한 기술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

5.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경제가 담보되는 것, 여성운동성이 있는 것, 우리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 위계적 반복적이지 않은 것, 우리를 어떤 틀에 끼워넣지 않아도 되는 것, 여성들만의 아지트, 다양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카페의 매력

6. 구체적인 창업 경로를 설명해달라.

유식회(먹고 노는 모임)로 서로 친해지고 약간의 신뢰가 쌓임,
서로 인간적인 면과 애정이 나타났다.

96년 7월 7일, 이날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나도 그랬는데'라는 패감을 느낌.

따라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능성 모색. 이후 시간을 내서 계속 논의한 결과 아이스크림가게를 하기로 결정(각자의 일을 계속 하면서 카페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시장조

사 체인점 관리자들을 만나본 결과 카페를 하는 것과 자본이 비슷하게 든다는 것을 알고 바로 카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신촌과 이대를 중심으로 알아 본 결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

96 9. 카페하기로 결정,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정리하기도 함.

96 10. 2명이 사표 냄

97 2. 15. 퇴사

97 2. 16. 본격적인 창업준비 시작, 카페 위치 선정, 투자금액 결정(카페 전세금, 위세 물품비, 비촉금), 카페 운영방식, 분배, 일본담 등에 대해 체계화시켜 감.

97 4. 초 카페계약, 인테리어 시작.

97 5. 13. 창업.

7. 창업시, 특히 여성이 창업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혼자 카페에 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상한 남자의 집적거림.

8. 평상시 당신 일의 스케줄은?(일주일)

월 : 근무, 회의 / 화 : 근무 / 수 : 쉬는 날 / 목 : 쉬는 날, 세미나 / 금 : 근무 / 토 : 쉬는 날

일 : 근무, 월요일, 일요일은 행사기획, 행사관련 사람 만나기, 행사 준비, 물품구입

9. 평상시 하루 일과를 설명한다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 영업준비, 커피내리기, 밥하기, 재료만들어 놓기, 물품확인, 차, 식사, 안주 만들거나 서빙, 테이블 정리, 설거지, 냉장고에 물품 채우기, 화장실 생리대 채우기, 화장실 청소, 행주 삶기, 카페 바닥 청소, 계단 청소, 아르바이트 관리, 은행가기, 매상관리, 손님과 수다 떨기, 일 끝나면 아쉬운 사람, 힘든 사람, 더 놀고 싶은 사람과 놀며 한 잔 하기.

10. 당신의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보고 싶은 사람이 제 발로 들어 온다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 일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무슨 일, 문제, 관계이건 대화를 통해 조정가능하고 풀릴 수 있다는 것.

11.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점은?

반복적, 단순한 육체노동의 지루함, 손님이 없을 때 할 일이 없는 것, 이 때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것 - 대기 상태.

싫은 사람과 얘기해야 하거나 주는 술을 마셔야 하는 것.

12. 창업 시에도 남녀차별이 있는가?

은행 대출 문제.

13.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대해 가지는 생각(선입견 혹은 고정관념)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

14. 당신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와 의논하는가?

'고마'운 사람들(숙경, 인선)

15. 초봉과 봉급체계는?

정해진 초봉이나 봉급은 없다. 매상수입에 의해 결정. 우리는 순수입의 60%를 노동 정도에 따라, 40%를 투자정도에 따라 분배한다.

16. 이 일이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 권리의 범주는?

카페전세금 보장 외에는 없는 것 같다.

17. 당신에게 있어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

나무로 말하면 뿌리이고, 새로 말하면 날개이다.

18. 후배가 이 일을 장래에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 세 가지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 동업한다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관계는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 미리 자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이자와 원금 상환, 생활비는 큰 부담이 된다.
- 원하는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 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파악하면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
-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일도 깨진다. 가장 치사하고 쪼잔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카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즐거워야 손님도 즐겁고 일도 잘 된다. 또 함께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나도 즐겁다. 수입 정도나 인정을 받을 일이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이 즐거울 수 있도록,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다. 놀이도 일처럼 중요하다.

사회단체 활동가 이지희

1. 당신의 직업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주민운동 / 관악주민연대 · 살기좋은 봉천9동을 만드는 주민모임에서 관악녹색가게 간사로 일하고 있다.

2. 당신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대학 재학 4년동안 지역연대활동 동아리에 가입하여 철거지역에서 다양한 지역활동을 하였다. 주민들과 철거싸움, 모임, 교육활동을 함께하고 아이들의 공부방 선생님이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답을 얻었다. 또한 지역활동속에서 활동가로서의 역할, 통찰력, 기획력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대해 배웠다. 이후 지역운동의 전망과 개인의 진로를 여러 지역 학생들과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장활동가 훈련을 기획하고 선배활동가들에게 의뢰하여 이수하였다.

3. 이 직업을 얻는데 요구되었던 학력, 기술, 경력 혹은 노력은 무엇입니까?

技術 이라기보다는 氣法이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氣를 불어넣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다. 역사에 대한 믿음, 사람들에 대한 신뢰, 철거지역에서의 원형체험이 나를 지역에 있게 하는 힘이다.

5.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거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생들과 당면한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의 활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활동가로 일할 수 있는 통로와 체계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개인의 전망과 관련한 문제를 개인차원으로 한정시켜 각자 풀어야 할 과제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지역 선배활동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과정과 지역으로의 통로를 요구하였고 주민운동정보교육원과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지역운동 현장활동가 훈련'을 1기로 수료하였다. (우리가 만든 이 훈련과정은 올해로 3기에 들어서 학생들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역운동 내부에서 공식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후 함께 수료한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지역에 들어가 활동을 하고 있다. 나도 관심에 따라 지역문화단체에 들어가 1년정도 일하다 개인적 사정으로 정리하였다. 지금 있는 단체는 이번 98지방선거에서 주민후보로 나온 선배를 도와주러 관악구에 왔다가 지역에서 필요한 녹색가게를 만들자고 주민들과 공동으로 제안하였고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의 추천으로(정확하게 추천은 아니다 제안하고 공동으로 준비하여 결합하게 되었으니까) 일하게 되었다.

6. 구체적인 취업경로를 설명해 주세요.

녹색가게운영, 회의·모임·교육 기획·준비·진행, 주민들,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만남

7. 평상시 당신 일의 스케줄은? (일주일)

8. 평상시 하루 일과를 설명한다면?

9시출근 6시퇴근이만 실제 퇴근은 회의, 모임이나 주민들과의 만남, 실무적인 일로 많이 늦어진다. 출근하면 하루일을 계획하고 통신체크로 시작하여 녹색가게운영, 기획, 준비, 주민들 만남 그리고 저녁에 주로 회의, 교육 뒤풀이로 끝난다.

9.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주민들과의 구체적 접촉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세력, 지역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를 느낄 수 있다

10.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 업무과다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11. 남녀차별은 얼마나?

공식적인 남녀차별은 없으나 신뢰의 문제, 성별에 따른 성역할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와 통념상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12.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대해 가지는 생각(선입견 혹은 고정관념)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직업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현실적 경제관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직업활동가이다. 나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일하는 여러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정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보장의 문제에 대해 개개인의 후원을 넘어 공

식적 체계마련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문제는 활동가 협동조합(육아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는 생태적 생활양식을 가지려한다. 물론 아직은 나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12. 당신의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와 의논합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선배

13. 고용형태는?

상근정규직

14. 봉과 봉급 체계는? (혹은 수입 정도)

월급제이나 3인의 활동가가 받은 월급을 합친 후 3인으로 나누어 가진다. 이후 지역의 여러 센터(비영리 민간 복지시설) 활동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월급을 나누어 가질 예정이다.

15. 이 일이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 권리의 범주는?

16. 당신에게 있어 직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삶 그 자체, 살아가는 의미

17. 후배가 이 일을 장래에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하는 일 세 가지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① 자원활동가로 지역에 들어가 현장 경험을 쌓아라.

② 개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전문성을 확보해라. 운동의 커다란 주제속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영역을 정하고 영역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③ 다양한 사람과의 구체적 관계맺기를 가져라.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공간이다. 지역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 전문가, 활동가 등의 관계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은 관계속에서 크기 때문에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속에서 느끼고 배우는동안 쑥쑥커가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중에 대한 과도한 실망도 과도한 기대도 하지마라. 낭만적인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지역에 들어와 쉽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와 끈기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

카피라이터 김성희

1. 당신의 직업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카피라이터 (편집디자인도 겸하고 있음)

2. 당신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회사가 하는 일 : 기업체의 인쇄홍보물(사보, 제품매뉴얼, 포스터, 카타로그, 리플렛 등)을 매킨토

시 컴퓨터로 디자인 후 인쇄, 납품

나의 일 : 고객사로부터 원고를 PC로 전송받아 매킨토시로 편집할 수 있게 호환, 원고 배치함

고객사와 작업 진행 일정 관리 및 의사소통

일부 고객사 사보 시가의 취재 및 기사 작성

모든 인쇄 홍보물의 교정, 교열

고객사 직원이 교정 본 것 파일에서 수정

3. 이 직업을 얻는데 요구되었던 학력, 기술, 경력 혹은 노력은 무엇입니까?

학력 : 전공(국문학)

기술 : 매킨토시 편집 경험(입사 당시 2년 경험)

경력 : 출판사 근무경력

노력 : 입사 전 우리말 맞춤법을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됨

4.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 있습니까?

디자인에 대한 감각, 문장력

5.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당시 직장보다 나은 근무조건과 급여 수준 (주5일 근무, 전 직장보다 30% 정도 인상된 급여를 요구), 창조적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6. 구체적인 취업경로를 설명해 주세요.

전 직장을 그만 둘 무렵 학교 친구 및 선배들에게 새 직장을 구한다고 알렸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선배는 아니었지만 한 선배가 자기 거래처에서 사람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몇 다리 건너 연락을 해와 지금의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 선배들 역시 주변에서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소문해서라도 자기 후배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한다. 조건에 맞는 후배를 알선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경우엔 운 좋게 맞아 떨어졌다.

7. 평상시 당신 일의 스케줄은? (일주일)

고객사와 월간 사보가 일의 중심이므로 일주일 단위보다는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돌아간다. 사보 발생일인 10일에 맞춰 매달 초엔 편집디자인과 교정, 교열, 출력, 인쇄, 납품이 10일까지 이루어지고 10일부터 25일 사이에는 부정기적인 인쇄물의 디자인 - 인쇄, 납품 일이 없을 때 각자 주제를 정해 연구하거나 컴퓨터 그래픽 연습, 컴퓨터 정비 등 기능적인 부분을 보강한다. 다음 달 작업을 미리 준비하나, 25일부터는 고객사에서 컴퓨터 통신으로 오는 원고를 취합, 정리하고, 사진 등 편집에 필요한 요소들을 받아 디자이너에게 전달한다. 1일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과 교정.

8. 평상시 하루 일과를 설명한다면?

최근의 일과 : 하루 걸러 아침마다 6시쯤 일어나 '요가'하러 마포도서관에 간다. 요가가 없는 날은 8시쯤 일어난다. 8시쯤 돌아와 신문 보고 아이 깨워서 출근 준비. 아침 식사는 불규칙.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 데려다 주고, 9시30분 경 회사 도착. 출근하자마자 일단 PC통신에 접속, 고객사로부터 메일 확인, 고객사 제품 카탈로그 원고 입력(고객사 직원이 입력, 전송해준 원고를 파일에 넣는 작업), 점심 먹고 퇴근할 때 까지 또 계속. 사이사이에 계간 사보의 기사 작성과 원고 도착 확인. 7시쯤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 찾아 집으로 간다. 집에 가서 저녁 준비, 먹고 치우

면 9시쯤, TV보거나 책, 신문 등을 본다. 또는 아이랑 놀아준다. 또는 시동생 및 남편과 놀아준다. 아이의 낱적이 (어린이집 알림장)를 일주일에 두세번 적고 12시 전에 잠잔다.

9.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각자 관심 주제를 연구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정보를 사 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10.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규모가 작아서 직장 동료나 상사와 갈등이 있을 경우 급방 노출돼 불편하다. 일이 매달 반복되므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 자체 기획된 일보다는 거래처의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야근, 특근 등 근무시간, 강도가 불규칙하다.

11. 남녀차별은 얼마나?

이 방면 종사자들은 디자인이나 카피라이터는 오히려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대체로 꼼꼼하고 미적 감각이 남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남자는 진득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눈에 띄는 남녀차별은 거의 없다. 납품할 때나 거래처 방문시 힘 좋고 기동력있는 남자 직원이 힘을 써야 할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남자직원 차별당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12.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대해 가지는 생각(선입견 혹은 고정관념)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3. 당신의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와 의논합니까?
일단은 직장 상사와 의논한다. 문제에 따라서 남편과 의논할 경우도 있다.

14. 초봉과 봉급 체계는? (혹은 수입 정도)

2년 전부터 연봉제로 바뀌었다. 사장과 면담 후 결정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전적인 능력급보다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15. 이 일이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 권리의 범주는?

16. 당신에게 있어 직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적 독립. 이것은 가정에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 인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노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가 아닐까.

17. 후배가 이 일을 장래에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 세 가지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관을 세울 것 (다급한 마음에 일단 아무 직장이나 돌아가고 보자 생각하기 쉬운데, 좀 놀더라도 자시의 직업관을 확실히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기 전공에 대해 충실한 지식과 식견이 있을 것(채용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공이다. 전공에 흥미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자신만의 특기나 능력) 친구 선후배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다져두고 적극 활용할 것(평소 친분이 없더라도 선배나 친구들은 자시의 친구 선후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 적극 도움을 청하고, 정보에 대해 민감해지길 바란다)

광고

구·인

수신 :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백조로 살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도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

발신 : 고실업사회 경제력 창출을 위한 여성 Group FReE War

소개글

본 Group은 1998년 가을 IMF에 굶어죽어가던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백조 기질로 푹푹 뭉친 이들은 항상 머리를 맞대고 돈 없이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공짜로 놀 수 있는 곳,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그러나 그나마도 차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기기에 차비버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과외아르바이트나 카페 알바같은 것도 하지만, 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짜질구레한 일들을 사업이라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나가게 되면 다 같이 '경제인구'가 되어 볼 생각도 푹푹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백조로서 살기 위한 정보수집.

작은 창업 아이디어 연구, 창업비용 마련

아르바이트 인력뱅크, 여성인력뱅크 만들기.

독립선언 여성에게 방 얻어주기.

현재 진행중인 Project

1. 통신 동호회 만들기 : 천리안 통신망에서 현재 발기인 모집 중.
2. coupon사업 : FReE War와 연계된 병원, 유흥업소, 옷가게등에서 일정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3. 베틀시장 : 안쓰는 물건 다시 나눠갖기. 이익금은 창업기금으로 적립.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화여대 정문 앞 '다림터'
4. 여성학 전문 정보검색 Data Base구축 : 정보검색 Group 창업사업.
5. 인터넷 관련 창업 연구
6. 아르바이트 인력뱅크 구축 : 회원들이 잘하는 일 3가지씩을 적어내면 관련된 알바를 찾아줌.
7. 여성인력뱅크 구축

모집기간 : 연중무휴

제출서류 : 자신이 잘하는 일 3가지와 연락처가 적힌 알바 구직서

가입비 : 1000원(창업기금으로 적립됨)

기타 : 9월 30,31일, 10월 1일의 3일간 연세대학교 'IMF 천막'에서 특별 베틀시장.

리나의 집시점등 FReE War를 직접 만날 수 있음.



우 리 · 더 · 러 · 어 · 켜 · 란 · 말 · 이 · 야!



진단

여성실업의 현황 및 대책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1. 여성실업의 현황

여성실업자는 1997년 12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 7월 현재 53만9천명 (6.3%)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실업자 1백65만1천명 (실업률 7.6%) /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여성실업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여성실업의 특성

1) 여성실업 현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실업통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거의 실업에 가까운 불안정고용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실업자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여성 실망실업자까지 합하면 실제 여성실업자의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망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여성실업률은 1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연령층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

그 현황을 보면 97년 7월 50.2%, 98년 6월 48.1%에서 98년 7월 47.6%로 감소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실업률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와 여성실업실태에 맞는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여성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여성취업자는 7월말 8백8만4천명으로 같은달의 8백80만8천명에 비해 -8.2%로 계속 감소율은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자 감소율은 2월 -6%, 4월 -7.1%, 7월 -8.2%로 남성의 2월 -2.1%, 4월 -3.8%, 7월 -5.3%에 비해 월등히 높다.)

4) 여성상용고가 줄어들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금노동자중 남성 상용노동자의 감소에 비해 여성상용노동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5) 직종·연령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사무직과 20대의 여성노동자가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비율이 높다.

6)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의 주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 해고와 기혼녀, 장기근속여성 등을 1차적으로 해고하는 여성우선해고가 활발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금융권에서는 퇴직여성들을 다시 시간제 등의 비정규직으로 재입사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노동권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이 핵심인력보다는 주변화로 위치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향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수록 여성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것이고 경기회복 이후에도 여성실업자가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평등은 더욱 멀어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우선해고

해고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신청에서도 여성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관계없이 '생계부양자는 남성'이라는 성별역할분업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우선해고가 빈발하고 있다. 여성들은 맞벌이여성, 사내케플, 산전후휴가 중의 여성, 아이 있는 여성 등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일해온 장기근속여성이라는 이유로 퇴직을 종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제도적으로는 여성우선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여성우선해고는 계속 되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이나 부서를 중심으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경제위기는 여성의 고용안정, 고용평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여성신규실업자의 증가

실업자는 크게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로 나눌 수 있고 여성실업에 있어서는 신규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신규실업자문제는 노동권, 노동 가능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98년 7월 현재 여성 신규실업자는 5만9천명으로 전체 여성실업자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성실업자 중에서 신규실업자가 차지하는 6.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신규채용 감소와 함께 여성에 대한 채용상이 차별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대졸 미취업 여성의 경우 작년과 동기대비했을 때 4.6%에서 8.7%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4. 정부의 실업정책

정부실업대책으로는 고용유지, 고용창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생계지원 등이 있다.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 해고와 실직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
(부당한 (정리)해고 근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 여성의 임시직화 규제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 진출기회마저 박탈하는 불법적인 차별채용 중단

- 여성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공분야에서의 여성고용 창출로 여성노동력 수요 증대
- 공공분야를 비롯한 모든분야에서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 신규여성실업자를 위한 무료직업훈련의 실시
-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여성유망직종 개발
- 여성취업알선기능의 강화
-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의 조기 적용
-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으로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 제공
- 노동관련 행정력의 대폭 강화 및 여성근로감독관의 획기적 증원
-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의 확보
(국방비 절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 도입, 고액이자소득자에 대한 실업·고용세 부과, 부정축재자 재산 환수 등)



광고

그래도 독립을 꿈꾼다

- '두입술' 창간호를 내며.

IMF실태통치란 한마디의 판결. 순간 세상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다음순간 그 이름 하에 온 세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일시에 정비되고 경직되었다. 이제쯤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는 치들은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뻔뻔히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떠밀리듯 빠져 나가려 하고, 어떤 치들은 하염없이 씩씩거리며 흥분하고 요지경 세상을 비난하기에 여념없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비난쯤 아랑곳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고 명령한다. 그나마 눈곱만큼 쌓아올렸던 여성의 지위도 모래위의 성에 처할 위협이다. 우리는 공포스럽고, 의지할 곳을 찾아 끊임 없이 두리번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애'라는 주제로 창간 준비호를 내었던 두입술은 창간호의 기획으로 '독립'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무언가에 또는 누군가에 기대지 않고서 스스로를 주장하고 표현하는 것을 고민하려는 것이다. 자칫 어려울 때마다 네가 잘 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처럼, 독립이라는 말의 뉘앙스에는 개인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물려버릴 수 있을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늘상 한발 늦게 어둠이 드리워지고서야 구조를 운운하며 반성할 줄 아는 것이 또한 법칙이고 구조라면, 차라리 이 난세에 아무런 방어 없이 휩쓸리지는 않을 최소한의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간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상상력이 사치로 간주되고 세밀함이 하찮고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시대의 조류에 특출난 능력도 없이 반대표를 던졌다. 보이지 않는 코웃음과 정신차리라는 암묵적인 손가락질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

서도 주저하며, 굳이 독립을 얘기하며 창간호를 준비한다. 스스로를 지키고자 함이다. 앞장서서 예측의 굴레로 들어서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짓 아니면 흘러 들어가서 막닥뜨릴 그곳보다는 이 길 이 훨씬 아름답고 지혜로울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듯 무거운 상황이지만 창간호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될 것이다. 여성의 독립을 거시적이고 광범위하게 다루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풀어가려 한다. 목전에 있는 졸업 후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취업에 관련된 경제적인 독립, 가족과 결혼의 문제들을 고민했다. 여성의 독립이라는 말에 묻어있는 핑크빛 환상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그 자리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채워 넣었다. 여성으로서 돈을 번다는 일, 방을 구하는 문제에서부터 가족을 벗어난 여성이 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생각해보았다. 한 발 더 나아가 가족이 아닌 삶의 형태들(독신, 동거, 공동체 그 외 삶과 관계의 양식들)에 대해 즐거운 상상들과 대화들을 나누었다.

'두입술'은 화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전문 언론매체가 되려고 한다. 여성화자인 루스 이리가라이의 '우리의 입술이 함께 말할 때'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어, 이 제목을 통해 열려 있고 부드럽게 흐르며 풍부하고 다양한 성질을 갖는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이들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여성언어의 잠재력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침묵하던 우리의 입을 열어 함께 얘기할 친구들을 낮은 문턱으로 기다리고 있다.

- 두입술 편집위원회

우리들의 한 마디!!

"여성이어 힘냅니다.
구조적 모순은 깨뜨리라고
있는 것이니 힘을 모아
깨뜨리자구요~"

"현실에 대한 분노, 비관
들, 상그런 표현들... 좀 더
진지하고 건설적이고 새로
운 희망을 위한 저항이라말
로 우리에게 걸설하다고 분
다."

9월 19일부터 9월 24까지 여자 화장실에 붙였던 백지자보 중.

"취업에 관해 두 생각 : 아
무리 만원버스라도 양을
자리는 있게 마련 → 교수
생각BUT 중점까지 서서
갈 수도 있다 → 내 생각"

그래도 독립을 꿈꾼다

부침을, 창고로를 내며.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외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하나하나
샘이되고
강이 되고
거대한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는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의견들에 기반에서 이후에 여성실업에 대한 토론회나
2차 강연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다음 질문들에 답변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요즘 여성노동과 관련,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너무 뻔한 질문?)
2. 이번 "살아야 한다! 비상구, 돌파구를 찾아서..." 여성신규실업에 대한 행사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3. 여러 대학들과 사회단체들이 여성실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연세대 내에서 여성실업에 대한 2차 강연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답변은 나우누리 "연세총여"로 편지를 보내주셔도 괜찮고,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앞에 있는 파란 우체통에 넣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전화(361-3645)를 걸어 총여학생회 집행부원에게 직접 얘기해주셔도 좋아요.

